

## 양궁 '올림픽 10연패' 광주·전남 공사들 있었다

서향순 1984 LA 개인전 금메달  
주현정 2008 베이징 단체 금  
기보배 런던·리우에서 연속 금  
최미선 2016 리우 단체전 금  
안산 2020 도쿄올림픽 3관왕  
남수현 파리올림픽서 금맥 이어



남수현

한국 여자 양궁대표팀 '막내' 남수현(19·순천시청)이 올림픽 10연패라는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관련기사 3·6·18면> 순천여고를 졸업하고 올해 순천시청에 입단한 남수현은 임시현(21·한국체대), 전훈영(30·인천시청)과 함께 29일 프랑스 파리의 레장발리드에서 진행된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8강에서 대만을 6-2로 가볍게 제압한 한국은 준결승전에서 퀴트 로에펜, 가비 슬루서르, 라우라 판데르빈켈로 팀을 꾸린 네덜란드를 5-4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한국은 결승에서 만난 중국팀을 상대로 초반 2세트를 가져왔지만 동점을 허용하면서 다시 한번 숏오프를 펼쳤다. 그리고 남수현이 경기 마지막 발을 10점으로 장식하는 등 한국은 숏오프 접전 끝에 5-4(56-53 55-54 51-54 53-55 <29-27>)로 승리하며 단체전 우승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1988년 서울 대회를 시작으로 계속된 '금메달 신화'를 10연패로 이었다.

40년을 이어온 금메달 역사에는 광주·전남 양궁 선수단의 큰 활약이 있었다.

한국 여자 양궁의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곡성 출신 서향순은 위대한 업적의 '시작점'이 됐다.

서향순은 광주여고 3학년이던 당시 1984년 LA 올림픽에서 17살이라는 나이로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곡성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양궁 선수의 길을 걷은 주현정이 6연패의 주인공이 됐다. 두암초 6학년 때 처음 활시위를 당겼던 주현정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자 양궁 단체전 6연패를 명



서향순



주현정



최미선



기보배



안산

증시였다.

2012년 런던대회와 2016년 리우대회에서는 광주여대를 거쳐 광주시청에서 활약한 기보배가 '금빛 역사'를 잇는 주역이 됐다.

현재 모교 광주여대의 스포츠학과 교수로 재임 중인 기보배는 런던올림픽에서 단체전 7연패와 더불어 개인전 금메달까지 석권했다.

4년 뒤 기보배는 '비늘구멍' 보다 좁다는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을 또 한 번 통과하며, 2년 연속 올림픽에 출전했고 리우에서 광주여대 후배 최미선

과 단체전 8연패를 합작했다.

최미선은 무안 일로초-전남체중·고-광주여대를 졸업하고 현재 광주은행텐텐양궁단에서 뛰고 있다.

코로나19로 2021년 개최된 2020도쿄 올림픽에서는 안산이 주인공이었다. 단체전 9연패를 이끈 안산은 처음 도입된 혼성 단체전에서 김제덕과 초대 챔피언이 됐고, 개인전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한국 하계 올림픽 역사상 첫 3관왕에도 등극했다.

광주체중·고와 광주여대를 졸업하며 광주 신궁계보를 이어온 안산은 올해 광주은행텐텐양궁단에 입단했다.

그간 광주·전남 공사들이 보여준 빛나는 활약에는 선수들의 열정과 의지뿐만 아니라 지역 양궁계 지도자들의 소통과 정보 교류도 큰 역할을 했다.

23년간 광주여대 양궁팀을 지도하고 지난해부터 광주은행텐텐양궁단을 지휘하고 있는 김성은

감독은 "경기를 보면서 대한민국 양궁의 대단함을 느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선수들과 이번에 남수현이라는 좋은 선수가 출전해 활약한 건 우리 지역 양궁의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남양궁협회 박명국 회장은 "광주·전남지역 양궁 관계자들은 정보 교환을 많이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선수생활을 해온 양궁인들도 일선 지도자로 많이 포진해 있다"고 전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남체고 양궁팀 감독을 지낸 박 회장은 금메달리스트 최미선의 은사기도 하다.

그는 "전남에서 남수현 선수가 최종적으로 선발되고, 올림픽 메달까지 획득해 정말 뿌듯하다"며 "광주·전남에서 앞으로도 훌륭한 양궁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중등부부터 우수 선수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레지던트·인턴모집 지원 '0' 전남대·조선대병원 '초비상'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당 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수련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응시모집 기간이 2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응시생이 현재까지 0명에 그치고 있다.

29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현재까지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 모집 마감일이 31일이지만 지원자가 나설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양 병원 올해 하반기 총원 예정인 전공의 인원(TO)은 총 68명(전남대병원 28명, 조선대병원 40명)이다. 해당 모집인원은 상반기 전공의 채용 당시 선발하지 못한 숫자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할 것을 요청했지만, 양 병원은 전체 417명에 대한 사직처리를 유보하는 대신 결원 인원만 선발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역 상급병원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한 마감일이 코앞이지만, 지역 전공의와 의대교수들은 "지원하는 전공의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는 대신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지역 수련병원 한 의대교수는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이미 개원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을 발굴을 수련병원으로 돌리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수업 현장을 떠난 의대생의 복귀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 현장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전공의들이 떠난 광주·전남 의료현장의 공백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지역 수련병원 관계자는 "아직 모집 기한이 남아 있어 기다려봐야 하지만, 지원자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급병원 의료 현장에 간신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급병원의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뜩이나 입지가 좁아지는 필수과 전공의 지원은 더욱 묘연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최경주 PGA 챔피언스 메이저 대회 우승 ▶19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반효진, 올림픽 100번째 금 썼다

16세 여고생, 공기소총 10m서  
숏오프 0.1점차 기적의 금 ▶18면

##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으로** **지역발전 가속화!**

- ✔ 전남 대도약의 시작, 2025년 국비 9조 원 시대 개막!
- ✔ 도로, 철도 등 SOC 예산 8년 연속 1조 원 이상 국비 확보!
- ✔ 한국형 아우토반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검토 착수!

